

3월의 기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119편 165절>



- 1. DCEM이 조용기 총재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3.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4.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지녔던 바울의 삶을 본받아,
5.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부요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6. 생각의 혼란을 부추기는 세상의 정보에 귀 기울이기보다 진리이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Imaobong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힘내세요!'님 외 다수의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뉴욕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프렘 차터 스쿨'이란 뉴욕에서 가장 열악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소득수준으로 보면 미국 최하위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사정은 80%가 편모, 편부 슬하에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사람이 80%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창립 7년 만에 뉴욕에서 최고로 높은 성과를 내는 공립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를 가능케 만든 주인공은 '세스 앤드류'인데,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학교가 뉴욕시 최우수 학교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원어 원주민 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인과 세계 10대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한국이 오늘날 10대 강국이 된 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자, 대학에 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5년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 그는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했는데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와 교실마다 세계 유명한 대학의 깃발과 사진을 가득히 걸어 놓았습니다. 또 학생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좋은 대학들을 탐방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학교의 고교 졸업 성적 중 영어, 수학 과목의 합격자 비율이 명문 고등학교와 맞먹는 99%에서 9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률은 10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가지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값진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목표를 안 가질 도리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만들고 죽어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가는 순간까지도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성결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어 장례 지낸 다음에도 부활한다는 모든 것에 목표가 세워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신바람이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의 꿈을 통해 일하시며,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Febr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13년 조용기 목사 초청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성회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모두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불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국민들이 많다. 지난 2013년 7월 9일과 10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가 개최되어 아시아 복음의 불모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7월 9일 싱가포르 최대 교회인 시티하베스트교회에서 1만여 명이 운집한 대성회를 인도한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고난은 믿음의 학교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용기 목사는 시티하베스트교회의 담임목사인 콩히 목사에게 "하나님께

의지해 고난을 통과하고, 앞으로 세계를 향해 더욱 강하고 담대한 성령운동을 하라"고 격려했다.

콩히 목사는 싱가포르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DCEM 조용기 총재목사에게서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성회에서 콩히 목사는 "한국의 기도가 아시아와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전하며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음 날인 7월 10일 조용기 목사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도시 반둥을 방문해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 부흥에 앞장서고 있는 니코 노토라하조 목사가 자카르타에서 반둥으로 찾아와

조용기 목사를 환영했다. 니코 목사는 자카르타 GBI교회 담임으로 전세계에 지교회를 개척해 20만명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계적인 목회자인 조용기 목사의 세미나를 듣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 세미나가 열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부흥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온다"며 기도할 것을 당부했고 세미나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지난 2013년 7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울려 퍼진 찬양과 기도의 물결이 아시아 전역으로 흘러 넘쳐나고 있음에 감사하며 더 큰 부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야훼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사이시리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6-9절)

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사이시리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 28:7-9)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가 절망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은 낙심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희망이 마음 속에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내가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3.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

다.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성령님을 품에 안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합니다. 나는 못 해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꼭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 부활,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위의 삶이 끝나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히 살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소망도 아니요, 죽어가는 소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절망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절망적인 사람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희망으로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떠난 식물들이 다 누렇게 퍼서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 모습의 초췌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는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치고 인생을 포기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술을 퍼먹든지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삶의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걸 걸머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꿔 놓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서 했지 학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던지 작던지 꿈과 희망과 용기만 가지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초자연적인 꿈을 마음 속에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인내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능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2.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

“하나님 사랑 최고 보답은 이웃 사랑”... 김성혜 총장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김성혜 한세대학교 총장이 지난 2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성혜 총장은 목회자 사모로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30곡 이상의 성가를 작곡했으며 2002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아 영국 노르웨이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부흥강사로 섬기며 복음전도에 힘썼다. 194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고 최자실 목사의 딸로 태어난 김 총장은 1965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결혼해 슬하에 희준, 민제, 승제 3남을 뒀다. 서울 예고와 이화여대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한 김 총장은 1995년 미국 맨해튼음악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등 피아노 연주자와 작곡가로 활동했다. 2002년에는 미국 베데스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순복음복미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2008년 미국 오렐로버츠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서대 사회교육원장 및 예술대학장, 한세대 부총장을 거쳐 2011년부터 한세대 총장을 맡아왔다. 김 총장은 2009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왕 최고 훈장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볼리비아 당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총

장은 사회복지법인 가나안우리집과 성혜장학회를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의 학업과 양육을 지원하는데 힘써왔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김 총장. 그의 칠십 평생의 절창(絕唱)이 세대에 끊기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복음 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계속될 것이다.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13년 7월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성회 이모저모



○DCEM 조용기 총재목사는 지난 2013년 7월 9일 싱가포르 선택시티홀에서 시티하베스트교회가 주최한 특별성회를 인도했다. 이날 성회에는 평일임에도 1만여 명이 넘게 집회에 참석, 좀 늦은 성도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 정도로 뜨겁고 활기찬 성회였다.

○싱가포르 성회에는 전세계적 영적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싱가포르 인근국가들의 지도자들도 참석했다.

○싱가포르 성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크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

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입술로 시인하는 교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싱가포르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설교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은 각자 받은 감동과 은혜를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설교 중 무려 27번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세계최대 모슬렘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지난 2013년 7월 10일 ‘성령의 축제’가 열렸다. 조용기 목사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도시 수카와르나 반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니코 노토라하조 목사(자카르타 GBI)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을 온 마음으로 존경한다. 그는 늘 모든 교회를 협력하게 했다. 협력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였다. 하나되는 인도네시아를 통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GBI 수카와르나 반등 교회에서 성회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한국어 반등을 방문,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GBI 수카와르나 반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부흥을 주도하고